

Calvin B. DeWitt

미국 위스컨신 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기독교 국제
환경운동의 본산인 Au Sable Institute의 Director
이기도 하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주의 기독교를 향한 창조세계의 환경적 도전

God's Love for the World and Creation's
Environmental Challenge to Evangelical
Christianity

번역: 김성수 교수, 고신대학교

이 글은 저자 C. B. DeWitt박사가 한국어 출판을 위해 자신의 다음 두 논문에서 주로 발췌하여 쓴 것이다: God's Love for the World and Creation's Environmental Challenge to Evangelical Christianity. *Evangelical Review of Theology* 17(2):134-149, 1993 and *Christian Environmental Stewardship: Preparing the Way for Action. Perspectives on Science and Christian Faith* 46(2)(June):80-89, 1994. 이 글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교회의 성경공부 모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출판한 다음 제목의 성경공부

8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세계의 환경적 도전

교재에 잘 수록되어 있다. *Earth-Wise: A Biblical Response to Environmental Issues*, Grand Rapids: CRC Publications, ISBN 1-56212-057-3 (TBA), 1994.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 . . 그러나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요 3:17, 18a, 21 Geneva Bible)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¹⁾ 계시록 11:18의 이 말씀은 최근까지만 해도 사람들에게 별 의미를 주지 못하는 선언이었다. 이 말씀을 주제로 하는 설교도 별로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교회 강단에서는 소홀히 취급되었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사는 방식 즉, 신자들의 “외현적 행동”(manifest deeds)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왔다. 최후의 나팔소리에 선언된 이 심상치 않은 전조적 심판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된다는 몇 가지 명백한 이유들이 있다. 예컨대, 인간이 어떻게 지구를 파괴할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이 어떻게 지구를 파괴하는 그러한 규모로 자신들의 청지기직을 남용할 수 있는가?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창조세계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창조세계를 파괴하는데 감히 사용하여 자신들의 영역을 스스로 포기해 버릴 것인가? 또 설령 사람들이 창조세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직을 남용했다고 하더라도 땅을 멸망시킬만한 힘을 결코 얻지는 못할 것이 아닌가! 와 같은 생각들 때문이다.

그러나 근자에 와서 우리는 인간능력의 혼합성과 무한성을 심사숙고해

1) 이 글을 통해서 인용한 성경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Copyright 1973, 1978, 1984 International Bible Society 인데, Zondervan Bible Publishers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다.

야 하는 이유를 갖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날마다 이 땅과 피조물의 새로운 파괴에 대해서 듣고 알게 된다. 물론 어떤 보고들은 좀 극화되고 과장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전문적인 과학 문헌들은 계속하여 새롭고 계속적인 환경파괴의 경우들을 묘사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전문적인 문헌의 보고들은 조용하면서도 냉철한 과학적 용어로 지구의 파괴에 대한 서술을 하고 있는데, 이들 과학적 설명들은 대중적인 문헌들이 아직도 그 심각성을 표현할 단어를 찾거나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깊고도 광범위하게 지구파괴의 드라마를 펼쳐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설명들은 모두 한 세기 전만 해도 도무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것은 인간이 지구에 대한 주도적인 파괴세력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계로 말미암아 증폭되는 손과 정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미치는 영향은 이제 대홍수나 허리케인, 또는 지진의 영향을 훨씬 앞서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능력의 실재와 또 그것이 창출해 내고 있는 실재를 경험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자연의 종말을 생각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때가 도래하였다.

창조계의 7대 퇴화 현상 (Seven Degradations of Creation)

과학적 문헌에 대한 분석은 “창조계의 7대 퇴화 현상”으로¹⁾ 묘사될 수

1) 여기서는 이와 같은 퇴화 현상의 목록을 그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가지 실례와, 이에 상응하는 하나의 인용 문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퇴화 현상의 보다 광범위한 열거와 인용한 일차 문헌 목록은 *The Creation Watch Papers of the Au Sable Institute, Issue Number 1*에 실려있는데, 이 자료들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 Au Sable Outreach Office, 731 State Street, Madison, Wisconsin 53706 U.S.A., Fax/Phone: (608)255-0950. 이들 퇴화 현상의 여타 목록은 다음 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Chapter 1 of *The Environment and the Christian: What Can We Learn from the New Testament?* C. B. DeWitt, ed., Grand Rapids, Michigan USA: Baker Book House, 1991; in *Seven Degradations of Creation*, "C. B. DeWitt, Perspectives 1989(Feb.): 4-8, 1989); and in *Seven Degradations of Creation: Challenging the Church to Renew the Covenant*," *Firmament* 2(1):5-9, 1990.

있는 지구파괴의 한 그림을 보여준다. 모두가 상호작용관계에 있는 이들 퇴화 현상들은 다음과 같다: (1) 지구와 태양의 에너지 교류를 변화시킴으로서 나타나는 지구의 난온현상과, 지구를 보호하는 오존층의 파괴현상;¹⁾(2) 침식작용, 염전화, 그리고 사막화에 의한 땅의 파괴로 말미암은 땅의 감손과 피조물과 농작물 수확에 유용한 농경지의 감소로 말미암은 땅의 파괴현상;²⁾ (3) 지구표면으로부터 주요한 산림지대를 해마다 그 크기로 볼 때 아이슬란드 정도 규모에 해당하는 약 100,000평방 킬로미터를 파괴하고, 또 이와 동일한 규모의 산림을 남용함으로써 파괴시키는 산림 벌목 현상;³⁾ (4) 매일 약 3종의 식물과 동물들이 사라지는 종의 소멸현상;⁴⁾ (5) 지하수, 호수, 강, 바다를 오염시키는 물의 파괴현상;⁵⁾ (6) 사람들이 공기와 물에 투여하는 물질이 대기권과 대양권에 순환함으로써 초래되는 폐기

-
- 1) 한 구체적인 실례는 남극 상공에 매년 봄마다 볼 수 있는 오존층의 상실인데, Halley Bay에 있는 The British Antarctic Survey station이 25년동안 거의 계속적인 측정을 한 결과 1970년대 말에는 경미한 오존층의 쇠퇴를 감지하였는데, 1990년대에는 조금 더 컸으며, 1984년에는 전체 오존층의 30% 고갈, 그리고 1989년에는 70%의 고갈 현상이 나타났다. [Anderson, J. D. Toohy and W. Brune. 1991. "Free Radicals Within the Antarctic Vortex: The Role of CFCs in Antarctic Ozone Loss." *Science*. 251: 39-46.]
 - 2) 한 구체적인 실례는 부식된 토양에서 빛물의 침투는 90%이상 감소되는데, 짐바브웨에서는 땅위를 흐르는 빛물의 양이 부식되지 않은 토양에서 보다 20%에서 30%정도 더 크다. 이러한 결과로 연중 강우량이 많은 경우에도 물의 기근 현상을 보이고 있다. [Pimental, D., et al. 1987. "World Agriculture and Soil Erosion." *BioScience*. 37: 277-283.]
 - 3) 한 구체적인 실례는 태국의 삼림 유실인데, 1985년과 1988년 사이 국토의 19%에서 29%에 이르는 삼림이 소실되었다. 필리핀에서는 1960년에는 1,600만 헥타르 규모의 자연림이 있었으나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일 백만 헥타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Repetto, R. 1990 "Deforestation in the Tropics." *Scientific American*, April 1990: 36-42.]
 - 4) 한 구체적인 실례는 Ecuador인데, 1960년 이래 열대 자연 수림(樹林)이 거의 완전히 제거되고 현금 가용 농작물 경작지로 바뀌어졌다. Rio Palenque에 불과 일 평방 킬로미터도 채 되지 않는 조그만 자투리땅이 43종류의 식물을 보존하는 유일한 잔여 장소이며, 한때 100종류의 풍토 식물을 보존하던 인근 Centinella Ridge는 1960년과 1984년 사이에 완전히 없어졌다. [Given, D. 1990. "Conserving Botanical Diversity on a Global Scale." *Annals of the Missouri Botanical Gardens* 77: 48-62.]
 - 5) 한 구체적인 실례는 유럽과 미국의 경우인데, 조사해 본 모든 우물의 5%에서 10%가 리터당 최대 허용치 45 밀리그램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질산염을 함유하고 있다. [Maurits la Riviere, J. 1989. "Threats to the World's Water." *Scientific American*, September 1989: 80-94.]

물 증산과 지구의 증독현상:¹⁾ (7) 지금까지 창조세계와 더불어 조화 있게 존속해 온 인류 공동체들을 위협하고 제거할 뿐만 아니라 수천년동안 지구상에 존속해온 다양한 종류의 수많은 식물과 원예식물들을 단종시켜 버리는 인간과 문화의 타락현상²⁾ 등이다.

창조주의 7대 방책 (Seven Provisions of Creation)

이러한 퇴화 현상들은 창조계와 모든 피조물, 그리고 인간의 생명이 거기에 의존해 있는 소위 “창조주의 7대 방책”과 대조를 이룬다. 이 7대 방책은, 그 대부분을 시편 104편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수세대를 통해서 창조주와 피조계에 대한 감탄과 경이, 존경심을 불러 일으켜 온 놀라운 신실성과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이 방책들을 앞에서 살펴본 7대 퇴화 현상들과 함께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장기간의 온실 효과로부터 생명을 유지 보존하는 수준에서 지구의 온도를 유지하고, 성층권 오존층을 통해 태양 빛을 여과함으로써 태양의 치명적인 자외선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태양과 지구간 에너지 교환의 조정장치; (2) 생물과 그 서식지를 통하여 산소, 탄소, 물, 및 여타의 필수물질들을 순환시키고 생명유지에 필요한 토양과 토양 구조를 구축하는 생지질화학적 순환과 토양 구축 과정; (3) 지구상의 생명체에 계속적으로 활력을 공급하고 생명 보존 물질을 부단히 할당해 주는 생태계 에너지 변환과 물질 재생 체계; (4) 모든 생명체가 의존하고 있는 지상수와 지하수를 증류, 여과, 순화하는 생

1) 한 구체적인 실례는 남극에 있는 펭귄의 지방조직 속에 DDT가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사이 Lake Superior의 Isle Royale에 있는 한 원근 호수에 살충제가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두 곳은 모두 이러한 물질들이 사용되는 장소로부터 엄청나게 먼 거리에 위치해 있다.

2) 한 구체적인 실례는 1975년에 필리핀의 Hanunoo 부족을 상대로 한 연구인데, 이 연구는 한 평균 성인이 1,600여종의 상이한 종(種)을 식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조직 식물학 조사의 이전 기록보다도 약 400종이나 더 많은 것이다; Nigeria와 제 2, 3세계에 있는 다른 곳에서도 이와 유사한 발견들이 있다. [Awa, N. 1989, "Participation and Indigenous Knowledge in Rural Development," Knowledge. 10:304-316]

물권의 정수체계: (5) 반응적이며 적응적인 생리학과 행동수단에 의하여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풍요한 다양성을 유지 보존해주는 생물학적이며 생태학적인 수확성; (6) 지구상의 생명 체계간에 물, 산소, 이산화 탄소, 및 기타 중요한 물질들을 분배하는 물과 공기의 지구적 순환; (7) 창조 세계로부터 배울 수 있고, 또 인간이 지구상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피조계를 보존할 수 있게 해주는 창조 세계의 법칙과 일치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다.”

창조세계의 증거 (Creation's Testimony)

창조세계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책들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있게 선포하고 있다.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노래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 속에 넓게 반향되어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비를 공급해 주시고 물을 순환시키시며, 피조물들을 위해 양식을 공급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시고, 땅을 풍족케 하신다(시 104:10-18; 행 14:17).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조주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현시적 사랑과 지혜를 통해서이다(시 19:1). 창조의 복음적 말씀들은 우주 전체에 스며들어 있으며(시 19:1; 롬 1:20), 창세로 부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성과 사랑에 대한 창조세계의 증거는 그 목소리가 땅 전체를 통해서 분명하게 울려 퍼질 정도로 편만해 있다. 창조세계의 복음적 증거는 너무나 강력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며 그 어느 누구도 핑계치 못할 정도이다(롬 1:20; 시 19:1).

1) 환경적 퇴화 현상과 필요한 반응들에 대한 묘사에 추가하여 생물권(圖)의 방책에 관한 보다 완전한 논의는 G. Tyler Miller, Jr., *Living in the Environment*, Belmont, California: Wadsworth, 1997 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창조세계 자체에 의한 이와 같은 강력한 증거가 위협을 받고 있다. 첫째로, 인간은 창조세계와 창조계의 증거로부터 점차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이 소외는 부분적으로는 자연 세계로부터 인간의 점차적인 분리에 기인하고 있다. 예를 들면, 농업에 종사할 사람들은 점점 더 적어지고 팽창하는 도시로 이동하는데 이들 도시의 점증하는 내적 핵심부는 흔히 자연을 대치하거나 파괴하고 있다. 창조세계로부터 인간의 소외는 또 다른 한편으로 인간적 원인을 환경적 결과로부터 분리시키는데 기인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음식은 상점으로부터 오며 휘발유는 정유소의 펌프로부터 온다고 사람들이 믿게 될 때 이러한 소외가 나타난다. 이러한 소외는 또한 환경적 퇴화를 통해서 창조세계의 증거를 감소시키는 일에도 기인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때는 다양한 생명체를 보존하던 깨끗한 강들이 무익한 운하로 바뀌어져 버리고, 이전에는 청명하던 하늘이 대기 오염물질로 말미암아 빛을 잃고 말았다. 이러한 형편에서 어떻게 우리가 창조주에 관한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점증하는 소외 현상은 창조세계의 퇴화현상에 인간이 공범자로서 연루되어 있고, 심지어는 창조세계를 파괴하는 더 열정적인 활동과 행동을 감행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창세로부터 존재하던 창조세계의 오랜 복음적 증거는 포기되고, 병어리가 되며, 침묵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심지어는 더 큰 환경파괴가 계속적인 나선형적 하강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었다.¹⁾

창조세계와 구속주 간의 간격

(Distancing of Redeemer from Creator)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많은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그리스도 사이에 많은 간격을 두어왔다. 혹자의 견해에 의하면 하나님은 단지 구속

1) 창조세계의 증거와 이 증거를 인식하고 보존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관한 보다 더 포괄적인 논의는 다음의 책에 잘 제시되어 있다. C. B. DeWitt, "The Christian Broadcaster and the Environment," *Religious Broadcasting* 1992(February): 32-35.

주가 되신 것이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우리로 하여금 창조세계를 보살피는 우리의 활동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 보이도록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초대 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영지주의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세계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분으로 인식되어 왔다.” 구세주를 창조주와 분리시키는 이와 같은 간격화는 때로는 지나쳐서 혹자의 마음에는 창조주에 대한 신앙이 행함이 없는 단순한 말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마치 램브란트를 찬양하는 예술 비평가가 램브란트의 이름을 높이 받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램브란트의 그림을 무시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 처럼, 창조주를 찬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도 창조세계를 유린하고 있다. 창조주와 창조세계로부터 격리되어가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창조계의 복음적 증거를 아무런 거리낌없이 무시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창조세계의 퇴화 현상을 초래하는데 일조를 담당하기까지 한다.

성경은 이와 같은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해 하면서도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창세로부터 인간들은 자기 자신의 길을 가기로 선택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소외시키고 죄의 결과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창 1-11). 인간은 올바른 일을 행하기

-
- 1) “창조세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물질 세계는 무지와 악의 근원이며 영혼의 울무라고 보는 플라톤적 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사상은 인간 초월의 사상과 함께 한 신화 사상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그것은 “영혼구원을 가장 강조하고 인간의 육체와 그것이 한 부분이 되어있는 창조 세계는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해 버리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Wilkinson, 1992). 모든 기독교 사상이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간에 이와 같은 비성경적인 구분을 하지 않고, 인간을 창조세계로부터 외면케하는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조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확증을 위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해 보라. *Earthkeeping in the Nineties: Stewardship of Creation* (Loren Wilkinson, ed.,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92, pp. 299-306). 물질과 창조세계의 중요성, 그리고 Marcion과 헬라 및 영지주의 지도자들이 보여준 창조세계에 대한 비성경적 증오에 관한 신학적 연구를 위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해 보라. Raymond C. Van Leeuwen, “Christ’s Resurrection and the Creation’s Vindication,” in C. B. DeWitt, ed., *The Environment and the Christian: What Can We Learn from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91, pp. 57-71.

를 추구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능력 안에서 무엇이든지 행하는 경향성을 가진자들로 묘사되고 있다. 인간은 진리를 행하고, 그들의 행위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나타내려 하기 보다는 자신의 상상력이 만들어내는 것을 행하기를 더 좋아한다(참조, 요 3:16-21). 그래서 오늘날도 인간의 행동을 인도하는 것은 당위적으로 행해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창 11:6)고 하신 바벨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반영해 보여주고 있다. 인간은 청지기직의 테두리를 파괴하면서 창조세계를 돌보고 동산을 보존하는 성경적 원리를 폐기하고 올바른 것 대신에 가능한 것을 추구하고, 빛 대신에 어두움을 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 지구의 파멸이 초래되고 있다. 참된 경건을 포기하고 인간은 스스로가 신이 되기를 추구하고 있다. 인간은 자족하기를 포기하고, 창조세계로부터 얼마나 많이 취하고 얻을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이익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경건을 우리의 큰 이익으로 추구하도록 교훈하고 있는 딤편 6:6-21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일들이다. 창조세계가 신음하고 있다. 인간이 지구를 멸망시키고 있다.

계시록 11:18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곧, 이 세계를 사랑하고, 보호하며,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영원한 삶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세계를 사랑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서 사람들은 이 세계를 퇴화시키며 파괴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세계의 증거를 경청하지 못함으로써 인간은 창조세계를 퇴화시키고 있다. 인간의 창조 세계의 법칙을 깨뜨리는 행동을 창조세계가 목도하고 있으며, 창조계의 현재 상태를 단순히 묘사해 주는 현대 선지자들에게 귀 기울이지 못함으로써, 인간은 지구파괴를 향해 돌진하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스스로를 또한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다. 종교적, 전문적, 정치적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들은 보고 듣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 인간은 창조세계가 현재 퇴화하고 있는 현실을 부인하고 있다. 많은 지도자들이 여론 조사를 읽고, 그 다음 자신들이 듣기 원하는

1) 요 3:19과 그 맥락, 및 요 3:16-21을 보라.

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한다.

주전 6세기경 역사상 또 다른 환경파괴의 시대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오늘날과 유사한 창조세계의 퇴화와 파멸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우러르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렘 4:23-26).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소홀히 한 것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며 이로 말미암은 환경적 결과가 어떠한가 하는 것은 지난 2천여년 동안을 통해서 잘 알려져 오고 있다(참조, 렘 5:22-23, 31 그리고 8:7).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God's Love for the World)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다(요 3:16). 생명을 선택하도록 백성을 훈계하시면서(신 30:19), 하나님은 파멸보다는 빛의 대안을 제시하시는데 곧, 영생을 제공해주신다(요 3:16). 이 땅을 파괴하는 자들은 스스로 파멸될 것이지만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보존자이시고 화목자를 진심으로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바 되고, 이 세상을 함께 보존해가시며, 이 세상과 만물을 자신과 화목케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 한 분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그를 따르는 일이다.

우리가 어떻게 만물의 창조자 곧, 하나님께서 창세기1장에서 반복해서 좋았더라고 선언하신 창조세계의 조물주를 따를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만물의 보존자이시며 창조세계를 위한 공급자가 되시고 만물의 통합자가 되시는 분을 따를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안에서 파괴된 모든 것을 취하셔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구주를 따를 수 있는가?

창조세계의 청지기직을 위한 성경적 원리

(Biblical Principles for Creation Stewardship)

만물의 창조자, 보존자, 화목자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법은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그리고 창조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적 활동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창조세계와 올바른 관계 속으로 인도하는데 도움을 주는 많은 성경적 원리¹⁾들이다. 이제 이 가운데서 7가지 원리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 일곱 가지 성경적 원리들 중에서 지구보존, 생육, 그리고 안식의 세 가지 원리들은 창조세계의 청지기직 문제를 보다 더 직접적으로 다루는 원리들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원리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1) 지구보존의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과 같이 우리는 창조세계를 지켜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민 6:24-26); 그러므로 주님께서서는 우리도 이 땅을 지키기를 기대하신다 (창 2:15).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가 사랑과 돌봄, 양육, 그리고 보존

1) 여기에 제시된 성경적 원리들은 역시 다음과 같은 글에서도 출판되었다. "Can we help save God's Earth?" *ESA Advocate* 1990(April): 12-13, 1990; "Respecting Creation's Integrity: Biblical Principles for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Firmament* 3(3):10-11, 20-21, 1992; "Responding Creatively to Creation and Its Degradation," *Theology, News and Notes*: 15-19. Pasadena, Californi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92; and *Christian Environmental Stewardship: Preparing the Way for Action*, *Perspectives on Science and Christian Faith* 46(2)(June):80-89, 1994. 이 원리들은 또한 음성 녹음 테이프로도 나와 있는데 다음 주소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 The 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America, Environmental Stewardship Office, 8765 West Higgins Road, Chicago, Illinois 60631 U.S.A.

으로 특징지워지는 것과 같이 창조세계를 향한 우리의 보호도 그러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므로 썩 죽,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땅을 다스림으로써(빌2:5-8), 우리는 창조세계를 보존하시는 창조자의 사역에 동참한다(창 1:28과 신 17:18-20). 하나님 여호와께서 땅을 감찰하시며 돌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계속하여 땅을 감찰하고 보호하여야 한다(신 11:11-12).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발하는도다. 저는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시 104: 10-13). 그러므로 이 땅은 우리로 말미암아서도 풍족하게 되어야 한다.

보충설명 : 창세기 2:15절의 말씀은 아담과 아담의 지손들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지키게 하시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shamar”이다. 이 단어는 사랑과 돌봄, 그리고 양육적인 보호를 의미하고 있다. 이 단어는 또한 민수기 6:24에 나오는 말씀 곧,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는 아론의 축복 기도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우리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할 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어떤 정적인 보존 상태나, 비활동적이며 무관심한 상태에서의 보호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 간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명력과 에너지, 그리고 아름다움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간구이다. 우리가 아론의 축복 기도를 기원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보호는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삶을 충족시키는 그 모든 관계를 양육하는 그러한 보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족, 배우자, 자녀들과 맞는 관계, 우리의 이웃 및 친구들과 맺는 관계, 우리를 보전해주는 땅과 맺는 관계, 공기 및 물과 더불어 맺는 관계,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과 더불어 맺는 그 모든 관계를 보양해 주는 그러한 보호이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지킴에 있어서 동산을 지키는 우리의 보호 행위도 이와 꼭 마찬가지로이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가 동산을 지킬 때, 우리는 우리의 보살핌과 보호아래 있는 피조물들이 항상 그들의 적절한 모든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피조물들이 그들과 동일한 종류의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상호작용하는 다른 많은 종류의 피조물들,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들이 의존하고 있는 토양과 공기와 물과 더불어 맺는 올바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가 아론의 축복기도와 더불어 간구하는 이와 같은 풍요하고 충만한 보호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산 곧, 하나님의 피조물과 이 모든 창조세계에 가져와 실현해야만 하는 그러한 보호이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백성을 지키시듯이 하나님의 백성도 역시 창조세계를 지켜야 한다.

(2) **생육의 원리:**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세계의 은혜를 향유할 수는 있지만 파괴해서는 안된다.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풍요한 은사와 충만함은 아담과 그 자손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았다. 더 많은 것을 탐욕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이제는 창조세계를 보존하는 충만함까지 파괴하려는 의지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주권자 되신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신다: “너희가 좋은 풀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풀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겔 34:18; 또한 신 20:19과 22:6을 보라).

보충설명: 사람뿐만 아니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도 생육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창 1:20절과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고 선언하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을 생육하도록 축복하신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생육케하시는 활동 곧, 땅과 생명에 부여하여 만족케하시는 하나님의 생육케하시는 활동을 반영하고 있다. 시편 104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

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발하는 도다. 저가 그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시편23편은 우리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지”를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생육케하시는 활동이 창조세계에 소산을 가져오는 것처럼 우리들의 활동도 그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위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도록 창조된 백성인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도 역시 피조물들을 위해서 공급해주는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소멸되는 위협을 당하였을 때 자신의 시간과 재물, 명예를 아끼지 아니한 노아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한다. 대홍수 즉, 노아의 시대에는 물의 홍수 였지만 오늘 우리시대에는 사람의 홍수가 땅위를 덮어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대신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회생시키고 땅위를 덮는 인간 홍수를 허용하는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사 5:18)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창조세계를 향유하고, 창조 세계의 소산을 함께 공유하기를 기대하면서도 우리는 창조세계의 충만함이 의존해 있는 생육성을 파괴해서는 안된다. 노아와 함께 우리도 상호작용을 하는 다양한 종류의 생명체들을 구하고, 이 땅과 물을 가지고 생물권(生物圈)의 구조를 형성해야만 한다. 우리는 에스겔 34:18의 심오한 경고가 우리의 마음에 진동하고 울려 퍼지게 해야한다. “너희가 좋은 풀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풀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3) **안식의 원리**: 우리는 창조세계를 쉴새없이 냉혹하게 압박하지 말고 안식하는 휴식기간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인간과 동물이 휴식기간을 가져야 하는바와 마찬가지로 땅도 안식의 기간을 가져야만 한다(출 20:8-11; 23:10-12). 사람과 땅,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쉴새없는 혹독한 압박을 받아서는 안된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時候)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 지라”(레 26:3). 그렇지 않으면 땅이 황폐해 질 것이고, 오직 그 때에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레 26:34-35)!

보충설명: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은 칠일중 하루는 구별하여 사람과 동물이 안식하는 날로 삼도록 요구하고 있다. 사람과 동물이 안식의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땅도 안식의 기간을 가져야만 한다. 출애굽기 23장은 다음과 같이 명령하고 있다. “너는 육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播種)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 칠 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 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혹 너희 날이 우리가 만일 제 칠 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레위기 25장과 26장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신다 : “내가 명하여 제 육 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삼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땅이 소출을 낼 수 있도록 이 안식의 법칙을 실천하라는 것이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時候)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은 그것이 봉사하는 사람을 위하여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안식년은 무분별한 착취로부터 땅을 보호하고, 땅이 새롭게 활력을 회복하도록 도우며, 땅으로 하여금 다시금 모든 것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있다. 안식년은 휴식과 회복의 시간이다. 이 안식은 단순히 율법주의적인 요구가 아니라 심오한 원리이다. 그러므로 일부 그리스도인

농업 공동체에서는 매 2년마다. 땅을 쉬게 하므로써 이 안식의 원리를 실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땅이 필요로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안식의 원리는 농업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세계에 적용된다.

그래서 성경은 레위기 26장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聽從)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蔑視)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 . .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 때에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시에 쉬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4) 제자도의 원리: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의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롬3:23) 가문의 후손들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 . .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20-22)고 성경은 확증하고 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和平)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和睦)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 .”(골 1:19-20).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함께 서있는” 그분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의 활동을 회복하는 일 곧, 만물의 회복과 화목을 가져오며, 첫 번째 아담이 성취하지 못한 과업을 수행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요 1, 그리고 골 1; 고전 15와 롬 5; 사 43: 18-21, 사 65와 골 1:19-

20, 5:17-21).¹⁾

(5) **왕국 원리**: 우리는 자기 유익이 아니라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 6:9-10). 창조세계를 손상시키고 거대한 이익을 축적하는 사람들의 불의한 본을 추종하도록 요구하는 유혹들이 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기를: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이다. . . 여호와를 기대(企待)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시 37; 마 5:5)고 하고 있다. 성취는 그의 나라를 추구하는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다(마 6:33).²⁾

(6) **자족의 원리**: 우리는 자족을 우리의 위대한 이익으로 추구해야 한다. 아담과 그 후손들은 동산의 생육성과 은혜 곧, 창조세계의 각양 은사들에 만족하지 않았다(창 3-11).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고 창조세계로부터 더욱 더 많은 것을 착취하고 있다. 우리의 창조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시 119:36).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바울은 (빌 4:12b), “...지족(知足)하는 마음이 있는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딤후전 6:6-21; 또한 히 13:5를 보라)고 기록하고 있다.

(7) **실천의 원리**: 우리는 우리가 올바르다고 알고 있는 바를 따라 행

1) 이 주제에 대한 신학적 연구를 위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해 보라. Ronald Manahan, “Christ as the Second Adam,” in C. B. DeWitt, ed., *The Environment and the Christian: What Can We Learn from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91, pp. 73-92.

2) 이와 관련된 신학적 연구를 위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해 보라. “The Kingdom of God and Stewardship of Creation,” by Gordon Zerbe, in C. B. DeWitt, ed., *The Environment and the Christian: What Can We Learn from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91, pp. 73-92.

동하는 데 실패하지 않아야 한다. 청지기직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러한 지식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논의하고 노래하며 명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성경의 엄연한 말씀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로부터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는 소리를 듣고 나아온다. 그러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利慾)을 좇음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音樂)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겔 33:30-32; 또한 눅 6:46-49를 보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때문에(요 3:16), 우리는 진리를 행해야 한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자신의 행동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게 해야 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일치하고 조화하며 교제하는 활동과 행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야 한다(요 3:16).

결 론

모든 창조세계의 창조자이시며 보존자 되시고 화목자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분명히 이와 같은 성경적 원리들을 읽거나 심지어는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것 훨씬 이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적 원리들은 유용한 출발점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러한 성경적 원리들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더욱 더 깊이 있게 인도해 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보다 광범위한 창조세계와 접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 대한 이와 같은 위대한 통찰과 광범위한 이해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다 나은 제자들이 될 수 있다. 의심할 나위없이 우리 모두는 죄책감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즐거움에서부터 우리의 일을 수행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 용서는 “은혜

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죄에 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데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해 주는 용서이다. 우리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는 기대에 찬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참고문헌¹⁾

- DeWitt, Calvin B. 1994. *Earth-Wise: A Biblical Response to Environmental Issues*. Grand Rapids: CRC Publications. ISBN 1-56212-057-3 (TBA) [A church discussion group study guide.]
- Dull, Kevin J. and Ted H. Streakfull. 1995. "Greening of ground water." *Civil Engineering*, 65(Apr):62-65.
- Edmonson, W. T. 1991. *The Uses of Ecology: Lake Washington and Beyond*.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Ehrenfeld, David. 1993. *Beginning Again: People and Nature in the New Milleniu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alston, Arthur W. 1992. "Photosynthesis as a Basis for Life Support in Earth and Space." *BioScience* 42(Aug):490-493.
- Gleick, Peter H. 1993. *Water in Crisis: A Guide to the World's Freshwater Resources*. Berkeley, California: Pacific Institute for Studies in Development, Environment, and Security.
- Graedel, Thomas E. and Paul J. Crutzen. 1995. *Atmosphere, climate and change*. New York: Scientific American Library.

1) 이 논문에서 참조한 문헌을 찾으려고 하면 다음 연락처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The Au Sable Institute, Outreach Office, 731 State Street, Madison WI 53703 USA. Fax: (608)255-4228.

- Houghton, R. 1994. "The worldwide extent of landscape change." *BioScience* 44(5):305-313.
- McKibben, Bill. 1966. "Christmas unplugged." *Christianity Today* 40(14):19-23.
- Nebel, Bernard J. and Richard T. Wright, *Environmental Science: The Way the World Works*. Englewood-Cliffs, NJ 07632: Prentice-Hall, 1993.
- Ojima, D.S., et al. 1994. "The global impact of land-use change." *BioScience* 44(May):300-356.
- Pimentel, D. et al. 1995. "Environmental and Economic Costs of Soil Erosion and Conservation Benefits." *Science* 267:1117-1123.
- Rodriguez, Jose M. 1993. "Probing Stratospheric Ozone." *Science* 261:1128-1129.
- Sisk, Thomas D., A. E. Launer, K. R. Switky, and P. R. Ehrlich. 1994. "Identifying extinction threats." *BioScience* 44(9):592-604.
- Sparks, Richard E. 1995. "Need for ecosystem management of large rivers and their floodplains." *BioScience* 45(Mar):168-182.
- Zepp, Richard G., ed. 1994. *Climate-biosphere interactions: biogenic emissions and environmental effects of climate change*. New York: John Wiley.

저자 DeWitt박사는 이번 5월 11일에서 31일까지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 기간동안 그의 강연이나 세미나를 대학, 교수나 연구자 모임, 학생모임, 또는 교회모임 등에 초청하여 듣고자 하는 분은 고신대학의 방문교수인 Kenneth Hermann 교수 (한국명:허만근)께 (052) 414-5925로 전화 연락 하시거나 kuyper@aol.com로 전자메일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기회이니 많은 적극적 이용을 바랍니다.